

지금이 'CBS의 겨울'인가

사장 한마디에 12·6 보도국 부장 인사가 전광석화로 처리됐다.

민주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았다. 보도국장은 서면 의결이 시작된 사실을 당일 뒤늦게 알았고, 인사 대상자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반대 의견이 나올 자리는 없었다.

무엇보다 사장의 인사는 CBS 기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모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다. 반복되는 인사 전횡을 보니 임기 끝까지 막무가내 고집불통인가 보다.

계엄과 탄핵을 취재하고 있는 현 시국에 기자들에게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겠는가. 사장에게 혹시 누가 건의했는가. 스스로 오판한 것인가.

한번 둘러보시라. 당신 곁에 앞으로 어떤 후배 기자가 남겠는가.

오늘 우리는 창사 70주년을 기념한다. CBS 공정방송 역사에 부끄럽게 남지 않길 바란다.

2024. 12. 9.

한국기자협회 CBS지회